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영암군, 2018 대한민국 지역 특산물 브랜드 어워드 '대상'

특산물정책 부문서 수상



영암군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일산컨벤션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지역특산물 브랜드 어워드에서 '특산물정책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개최된 2018 대한민국 지역특산물 브랜드 어워드 행사는 매경미디어그룹·매경비즈가 주최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250개사(500부스)가 참여했고 약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 KINTEX 제1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행사기간 동안 유기농 로컬푸드, 고급 식자재, 건강식품 등이 주로 전시·판매됐고, 부대행사로 유통사 입점 및 구매 상담회, 업체 마케팅 홍보, 유통지원 세미나, Fine Food 쿠킹 Show도 함께 펼쳐졌다.

군에서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철을 맞은 군의 대표 농산물인 무화과(생과, 가공품)를 삼호을 햇살 가득영농법인(대표 김봉석)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지 전시장에 입점해 참여했고, 무화과 전시 홍보 및 관측행사를 전개해 영암 무화과의 우수성을 수도권 도 시민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난 14일 오전 11시 컨텍스 2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특산물정책 부문, 마케팅 부문, 고객 만족부문 등 3개 부문 9개 기관에 대해 시상하였는데 군이 농·특산물의 공동 마케팅, 관료화대, 홍보활동 등 차별화된 농특산물 정책추진을 인정받아 특산물정책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는 현재 본격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전국 최고 품질인 무화과(전국 제매면적의 약 60%이상 차지, 무화과 시배지)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도시 소비자에게 명품 무화과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고 고객과의 폭발적인 인기를 경험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농·특산물의 정책실현으로 도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명품 농·특산물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화순군,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캠페인 전개

화순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3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일원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의 날(매년 9.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올해의 슬로건인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치매극복 공감대를 형성해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의 중요성, 치매예방수

칙 3권(즐길 것), 3금(참을 것), 3행(행길 것), 치매예방 운동법, 치매지원사업(치매치료관리비, 배회가능인식표 등), 치매상담콜센터(☎899-9988) 등을 홍보하고 치매 관련 책자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회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1박 2일 협동심 캠프' 성료



담양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취약계층 아동과 전남도립대학교 대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성군 일원에서 '대학생 멘토-멘티가 함께하는 1박 2일 협동심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하는 협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 향상과 대인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지역사회 지원으로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국립장성금계원에서 숲 오감체험과 자연 관련 퀴즈를 함께 풀고 글램핑을 하며 팀워크와 협동심을 배양했다. 특히 10년 후 자신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 미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평소 부모님께는 털어놓지 못한 고민들을 상담하기도 했다.

이날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무엇이든 협동을 통해 진행해 친구

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대학생 멘토들은 "아이들에게는 협동심과 사회성을 길러 주면서 우리도 아동복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드립스타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자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지역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별빛 사진 캠프' 성료

군 운영 시설 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높은 호응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별빛도서관과 천불천탑사지문화관이 함께하는 별빛 사진 캠프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어 참가 가족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하정례 작가의 '스마트폰 사진 강의'를 시작으로 진행된 '별빛 사진 캠프'는 화순군 문화해설사의 운주사 소개와 하정례 작가의 사진 지도

를 받으며 함께 운주사를 거닐고 직접 사진을 찍어보는 시간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각자 준비해 온 텐트를 치고 온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바비큐파티가 진행됐다.

'리리랜드', '이웃집 토토로' 등 영화상영이 함께 진행된 바비큐파티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준비한 음식을 처음 만난 참가자 가족들과도 스텝없이 서로 나누어 먹는 정겨운

광경도 펼쳐졌다.

둘째날에는 천사관 관람과 함께 전라북도 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진 인화 체험이 이어져 참가 가족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끝으로 1박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전날부터 내린 비가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1시 30분까지도 내렸다 그쳤다는 반복하는 곳은 날씨속에 한때는 정상 진행여부마저 불투명했으나, 참가 가족들이 속속 집결지에 모여들자 거짓말처럼 비가 잦아들고 점차 하늘이 개어 바비큐파티와 영화상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많은 별빛을 하늘 가득 수놓은 그야말로 '별빛 사진 캠프'라는 제목에 걸맞는 장관이 연출됐다.

군 관계자는 "처음 시도해보는 두 시설간의 협력프로그램이라 미숙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음에도 이해해 주신 참가자들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했다"며 "행사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냉철하게 평가해 내년에는 더욱 즐거운 캠프로 찾아 뵙겠다"고 전했다.

회순=박순철 기자

여수시,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가동

여수시가 시민과 귀성객이 편안 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2일부터 26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연휴기간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상황실은 재난재해, 도로교통, 생활민원, 보건진료, 관광 등 7개 대책반으로 구성된다.

연휴 전에는 다중이용시설, 공사현장, 교통 편의시설 등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사건·사고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우선 귀성객과 관광객 등의 방문에 대비해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와 관광주요지점 교통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당직·응급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등을 운영해 연휴 보건 공백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국가

보훈대상자 등이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명절 전 안부살피기 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명절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일부터 30일까지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를 찾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귀성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종합상황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연휴 여수시 교통정보와 문화행사, 병원진료 등 종합정보는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담양군, 추석전 아동수당 첫 지급

담양군이 오는 21일부터 대상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담양군은 지난 6월 20일 사전신청을 시작했으며 1,536명의 대상아동 중 1,481명이 신청했다. 신청률은 98%에 달한다. 8월 말 기준 대상아동의 76%인 1,179명의 보장결정을 완료했고 300여 명이 소득·재산 자료 조사 중에 있어 신청자 수 대비 96%에 해당하는 1,480여 명이 9월 중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하며, 9월은 21일 지급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